# 제23기 해외역사문화탐방 대만편
(2019.10.30.수~11.02.토)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만을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대만탐방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내가 만약 23기 탐방단에 뽑혀 탐방을 가게 된다면, 홍콩 민주화 시위인 '우산혁명'의 주역이자 '범죄인송환법' 반대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이 2019년 9월3일에 방문하여 홍콩 시위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던 대만, 그리고 홍콩의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었던 대만의 차이 총통, 또한 이런 대만에 1949년12월10일 50만 군대를 이끌고 피신했던 장제스가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해 주었고 한국광복군의 창군을 지원해 주었던 동기와 배경을 몸으로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배경(일본의 지배)을 갖고 있는 대만인들의 정서가 궁금했습니다. 청나라의 지배를 200년 넘게 받았었고, 연이어 일본의 지배를 50년간 받았고, 1945년부턴 중화민국이 통치하게 된 대만. 그들은 중국, 일본에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의 차별대우와 착취가 초반엔 심하여 1947년엔 대만 원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융화되어 살고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구요.

자! 그럼, 대만탐방을 떠나볼까요!
4박5일의 대만여행 동안 현지 가이드님의 설명에  귀 기우려가며, 대만의 국립고궁박물원, 충렬사, 스린야시장, 지우펀 옛거리, 스펀, 장안차오 흔들다리, 중정기념당, 금융천 해수온천, 야류해양공원, 서문정거리, 101타워전망대를 보고 느끼며,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우님들과 말문도 터가며 재밌게 다녔습니다.

현지 가이드님에게 들은 설명을 바탕으로 대만의 역사와 문화를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
고구마 형태인 대만은 주요도시 타이베이 시, 신베이 시, 타오위엔 시, 타이중 시, 타이난 시, 가오슝 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한의 1/3보다 조금 더 큰 면적 위에 약 2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인 타이베이에 약 1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참고:남한인구 약 5000만명) 인구구성은 대만인(84%), 본토 중국인(14%), 원주민(2%)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공전쟁의 패배로 장제스를 따라 이주한 본토 중국인들은 소수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이주민들의 이른 고령화로 인해서 횡단보도의 차량 대기 시간이 1분이상 된다고 합니다. 차량들도 신호등에 표시된 대기시간을 볼 수가 있고, 사람들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남은 시간을 볼 수 있더라구요. 이 신호등은 대한민국 기술이라고 하네요. 뿌듯하더라구요.
또한 대만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3만원 정도를 내면, 약값은 최소한으로 책정되어 있고, MRI비용, 수술비까지 무료라고 합니다. 기름값도 1리터당 900원 후반대이구요. 또한 증여세도 없어서, 재산의 대물림이 가능하구요. 그러다보니, 노숙자도 집이 있을 정도랍니다. 일 하기 싫어서 노숙자를 할 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교육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며, 자식이 원하는 대로 밀어주는 남다른 교육방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대만은 1일 8시간, 주 50시간 근로시간을 엄격히 지켜야하지만, 본인이 의사, 경찰, 공무원 등의 봉사직을 원하면, 8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하는

봉사직이니까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대만인들은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하네요.
국가로 인정 받지 못하다보니, 대만인들은 내수를 신장시켜서 먹고 살아야 하기에, 자영업을 많이 하고, 서로 상생하기 위한 룰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자영업)천국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과 비교가 되더라구요.
그리고 경찰의 공권력이 강하여, 경찰은 실탄이 들어있는 최신형의 권총을 차고 다니며, 규정을 어기면 얄짤없이 벌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사형제도가 실행되구요. 그래서일까요, 대만은 범죄율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절전하기 위하여 밤거리를 어둡게 조절하는데도 말입니다. 이 점 역시 밤거리가 화려한 대한민국과 비교가 되네요.

대만 도착 첫 날, 수도인 타이베이 시에 위치한 충렬사에 근위병 교대식 시간에 맞추어 갔습니다. 근위병이 로봇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표정의 근위병들이 칼군무를 하듯 정확하게, 천천히 교대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자금성 태화전을 본떠서 건축한 본전과 근위병의 칼군무는 큰 볼거리였지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저렇게 힘든 근위병 업무에 임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중화민국 건국 공신들과 중일전쟁, 국공내전, 진먼 포격전 전사자들, 중화민국을 위해 순직한 사람들을 기리는 국립묘인 충렬사는 근엄한 근위병들의 표정과 더불어 숙연하게 만드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위병들은 오늘도 충렬사 바닥에  난 긴 검은 줄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교대식을 하고 있겠지요.

충렬사 근위병 교대식

충렬사를 뒤로 하고, 국립고궁박물원으로 향했습니다.
5000년의 중국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립고궁박물원은 세계 4대 박물관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미국의 메트로박물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영국 대영박물관, 중국 국립고궁박물원. 박물관이 아니고 박물원인 이유는 더 높은 수준의 유물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국립고궁박물원에는 중국 국민당이 국공 내전에서 패배하여 대만으로 이동할 때에 중국대륙에서 가져온 문화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장품의 수가 어마어마하여 3개월에 1번씩 전시하는 소장품을 전부 교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3개월에 1번씩 모든 소장품을 관람하는데 8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관람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소장품들을 정면에서 제대로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까치발로 겨우 본 소장품들 중 옥으로 만든 물건들이 무척 많았는데, 중국인들은 옥 안에 수호신이 있다고 믿기 때

문이라고 하네요.

1층엔 고대 문명 시기의 유물들이, 2층엔 중국 회화, 서예, 도자기 등 예술품들이, 3층엔 옥으로 조각한 배추인 '취옥백채'를 비롯한 황실의 보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3살~7살)를 서태후가 수렴청정할 때 사용했던 8폭의 옥병풍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위쪽엔 등급이 놓은 짙은 초록색의 옥을,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옅은 색의 옥을 조각하여 병풍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서태후의 사치 덕분에 제 눈이 호강을 했네요.

옥병풍

취옥백채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세계 최고 미녀의 기준이라는 양귀비의 석상, 도자기 속에 그려져 있는 빨간, 파란, 초록의 용들, 용의 발가락이 5개면 왕만 사용했고, 3개면 아들이 사용했고, 발가락이 없으면 공주만 사용했다는 도자기들, 부의 상징인 잉어그림들, 띠끌 하나 없는 흰색 도자기부터, 알록달록 용과 잉어가 꿈틀대는 도자기까지 다양한 도자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을 헤치며, 가이드님 놓칠 새라, 유물들 관람하랴, 그런 와중에서도 감탄하랴.....흔들린 사진이라도 찍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만은 국가로 인정 받지 못하다보니, 국내수요를 신장시켜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려고 자체 시스템을 잘 구축시켜 놓은 듯 했습니다.

대만엔 야시장이 많았는데요.

서로 상생하기 위하여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자영업의 천국인 대만에서 야시장이 활성화된 요인이 근로시간 엄수였습니다. 거기다가, 상도덕이 엄격하게 지켜져서 업종이 겹치는 상가가 없다고 합니다. 노점도 없구요.

표준정찰제를 철저히 지키며, 깎아주는 대신 몇 개 이상 사면 물건을 1개 더 끼워준다고 하네요.

왠만하면 현금거래구요. 그러다보니, 은행이 많이 보였구요. 은행을 보관소로 이용해야 하니까요.

유일하게 편의점이 겹치는데, 표준정찰제인데다가 진열대의 전시품 판매가 끝나면, 더 이상 보관해 둔 물건이 없어서, 손님은 옆 편의점에 가서 그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네요. 대만인들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정해준 룰을 무척 잘 지키는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스린야시장

대만카스테라

대만과일가게

야시장은 큰 볼꺼리보다는 대만의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곳이더군요. 저녁을 배불리 먹은 걸 어찌나 후회하며 스린야시장을 돌아다녔는지....안타깝더라구요. 그래도, 대만 카스테라 오리지널과 대만과일(망고, 파인애플 등)을 사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대만인들은 인심이 참 좋았어요. 숙소 근처 식당에 가서 대만에서 유명한 18일 맥주에 간단히 안주를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사간 대만과일과 카스테라를 나누어 먹으라고 큰 접시를 여러 개 갖다 주더라구요. 무척 고마웠습니다. 여행 후 뒷풀이가 묘미였지요. 컴퓨터화면으로만 보던 교수님을 실제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봤다는 게 큰 자랑꺼리구요. 서울사이버대학교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둘째 날은 산 속 큰 마을인 지우펀엘 갔습니다. 지우펀 사람들이 산에서 나와 물건을 살 때마다 9인분씩 사가서, 그 마을을 9인분을 의미하는 지우펀이라 불렀다고 하네요. 지우펀 옛거리에 도착하니, 비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우산이 뒤집히고, 옷에 신발까지 흠뻑 젖어버렸네요. 뒤늦게 비옷과 신발 위에 신는 무릎 아래까지 오는 비닐신을 사서 신고, 옛 거리를 마저 걸었습니다. 대만의 비바람 때문에 발달했다는 우산기술. 당연히 티타늄으로 만든 뒤집혀도 부러지지 않는 대만 우산을 구입했습니다.

비옷을 사 입고

오카리나가게

대만 전통 팥빙수, 펑리수, 망고빙수, 각종 차, 부엉이모양 가죽지갑, 도자기로 된 오카리나 등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특히, 주인장이 직접 색칠도 하고, 즉석 연주를 해주는 오카리나 가게가 인기 만점이었지요. 고양이모양, 오리모양, 부엉이 모양 등 다양한 모양의 오카리나가 청아한 소리를 내더군요. 그 소리를 한국까지 가지고 가고 싶더라구요. 이쁜 부엉이들로 사왔지요.

지우펀에 있는 식당에서 대만식 식사를 했어요. 뭔가 많이 먹었는데, 기억나는 건 써비스로 나온 콩나물무침. 한국에서 먹는 그 맛이 나더라구요. 아직도 그 아삭함이 입가를 맴도네요.

천등 날리기

장안차오 흔들다리

약 1시간을 달려 스펀으로 이동했습니다. 천등을 날리는 스펀은 기차가 옆으로 지나가는 동네였습니다. 천등을 날리면 10분 동안 떠 있다고 하여 스펀(10분)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소원을 동기

넷이서 열심히 적어서, 불을 붙여 하늘로 날렸습니다. 기차 소리가 나면 가게 안으로 피신했다가,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천등을 날렸어요. 대만인 아저씨가 한국말을 익살맞게 잘 하시더라구요. "기차", "피해", "날려", "웃어", "하트"..... 아직까지 귓가에 맴도네요.
스펀엔 장안차오 흔들다리가 있어서, 우리 일행은 모두 흔들다리를 건너 천등이 날아갔던 산 쪽을 보았지요. 소원이 이루어지길 빌면서.....

현지 가이드님의 깜짝 선물로 일정에 없던 중정(장제스)기념당엘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길 안 갔으면 너무나 아쉬울 뻔 했네요. 본래 중국의 섬이었던 대만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식민지 시절을 겪고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후 1949년 장제스에 의해 지금의 대만이 설립되었다고 하네요.
1975년 장제스총통이 서거하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1980년 4월5일 중정기념관을 개관했다고 합니다. 중정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려면 89개(장제스가 서거한 나이)의 계단을 올라가서 거대한 장제스 동상을 보고, 그의 집무실을 재현해 놓은 곳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정기념관 모형도

장제스 집무실 재현

중정기념당은 이런 대만의 역사를 대표하는 장소로 대만의 초대 총통인 장제스를 기리기 위해 만든 곳이지만, 쑨원과 장제스의 부인 송미령의 업적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1924년 쑨원이 황푸군관학교를 세우면서, 장제스가 교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유교와 불교 환경에서 자랐고, 청년시절엔 서양철학과 기독교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송미령과 결혼을 하면서 기독교로 개종까지 했다고 하니, 새로운 종교나 학문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는 거부감을 없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장제스가 국민당 총재까지 올라가게 한 밑거름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제스의 업적도 대단하지만, 부인 송미령이 없었다면 이 모든 업적들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송미령의 탁월한 외교능력과 설득력, 선견지명 등에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구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개최된 카이로회담(1943.11.22.~26)에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 중화민국 장제스 총통의 세 연합국 수뇌가 일본에 대한 대응문제를 협의하면서, 일본이 1914년 이래 점령한 모든 영토를 탈환한다고 합의하였고, 특별조항에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국제적 합의를 하였는데, 이 특별조항을 넣도록 기여한 이가 송미령이었다고 하네요.

장제스와 송미령은 폭탄을 던져 일본 상하이 파견군 대장을 죽인 윤봉길의사(1932.4.29)에게 감동하여 한국의 독립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나 고맙던지요.

그러나, 1992년 8월의 한중수교로 인해, 중화민국(이후 대만으로 불림)과 단교를 하면서, 대만인들의 원성을 샀다고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 같아 너무 미안하더라구요.

중정기념관 앞에서

셋째 날은 금용천 해수온천에 갔습니다. 일본의 온천보다도 대만의 온천물이 더 좋다고 하네요. 어찌된 이유에선지 일본인들이 온천장을 많이 운영한다고 합니다. 대만인들은 1895년 청나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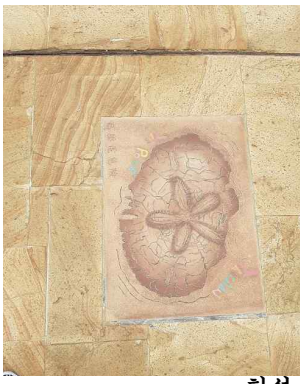
멸망하면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이 반일감정을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대만인들은 오히려 친일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만인의 일본에 대한 무장항쟁은 주로 원주민과 일부 한족 이주민이 했었고, 오히려 장제스와 장징궈 총통 이후 총통이 된 리덩후이는 노골적인 친일파였고, 차이총통의 전임인 마임주 역시 식민시기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일본 침략의 이유가 어찌되었든 164km 밖에 없던 도로망이 일본 지배 40년 만에 4456km로 확장되어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대만인들의 삶이 편리하게 되어서 대한민국과는 다른 감정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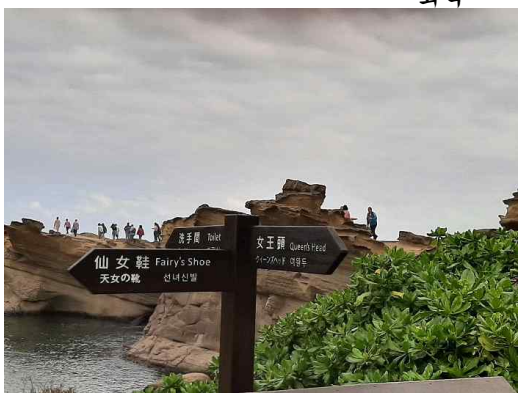
장제스 역시 일본 진무학교 출신이고, 일본군까지 하다가 청나라를 타도하기 위해 중국으로 귀국했다고 하는데,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원해주었다고 하니 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의 제 숙제가 되겠네요.

온천욕 후 야류로 이동하여 해양공원을 관광하였습니다. 북쪽 해안의 좁고 긴 곳에 돌출되어 있는 해양공원에서 꽃잎 모양의 성계화석은 흔하여 귀한 줄도 모르고 밟고 다녔고, 표고버섯 같은 심상암 180여 개는 만지면 닳을까 싶어 신신당부 받아가며 구경을 하였습니다. 야류공원의 상징인 심상암들은 해면에 노출된 암층이 파도의 침식과 풍화 작용으로 깎여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어서, 여왕머리, 촛대바위, 생강바위, 바둑판바위, 아이스크림바위 등이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야류공원의 대표 상징인 여왕바위는 고대 이집트 네페르티티여왕의 두상을 닮았다고 하여 붙인 이름인데, 해가 갈수록 풍화작용으로 깎여 목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섭리라는 불교의 영향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화석

촛대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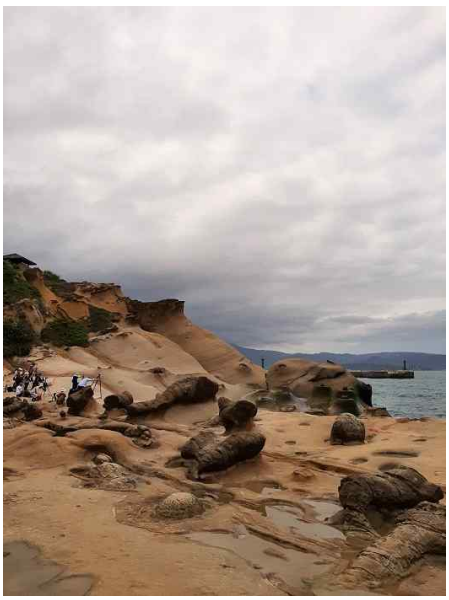


생강바위

여왕바위 가는 길

저 뒤에 여왕바위가..

여왕바위



대만의 북쪽 해안까지 구경한 후, 다시 타이페이로 돌아와 발마사지 체험을 하였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동기 셋이서 쇼파에 나란히 기대어 발을 맡기는데, 서로들 아프다고 할 때마다 맛사지 선생님들이 어눌한 한국말로 그러시더라구요. "수면부족", "많이 걸었어", "허리 아파".....

서문정거리는 미션을 수행해가며 구경하였습니다. 대만에서 유명한 곱창국수, 망고빙수, 과일쥬스(여주,망고 등), 85℃커피, 타이거슈거를 찾아서 먹고 인증샷 찍기 미션을 수행하느라, 구글지도를 돌리며, 연신 사진을 찍어대며, 지나가는 대만인들에게 손짓발짓으로 물어보며, 서문정거리를 헤매고 다녔네요. 대만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굉장히 순박하고 친절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홍보 동영상까지 같이 찍어주어서 무척 감사했지요.

대만학생들과 서문정거리에서.

미션 수행 중

서문정거리 풍경

드디어, 101타워전망대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1타워전망대(2004년)는 첫 날은 날이 흐려서.....둘째 날은 비바람이 불고 흐려서..... 갈 수가 없었는데, 셋째 날 간신히 갈 수 있게 되었네요. 508m의 101타워전망대에서 타이베이의 동서남북을 시원하게 내려다 볼 수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잦은 대만에서 508m 높이의 빌딩은 인간 승리인 듯

보였습니다. 지진에도 빌딩이 견딜 수 있게 삼성의 기술력을 빌려 와 강철원반41개로 세계에서 가장 큰 추를  지상 87층 높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건물의 완전 붕괴를 막아서 인명 손실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보다 건물의 2개층을 차지하고 있는 꼰 철근에 의지하여 매달려있는 황금색 강철 추에 눈길이 더 갔습니다. 황금 추가 너무 무거워 반으로 갈라서 각각 공중에 올린 뒤 합쳤다는 가이드님의 설명과 지진으로 건물이 휘면 이 추가 반대 방향으로 가서 건물을 바로 잡아준다는 설명들을 듣고 있자니,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구요.

타이베이 101타워

타이베이101타워 강철댐퍼 앞에서

이로써 4박5일 동안의 대만 타이베이 관광이 막을 내렸네요. 아쉽더라구요.

마지막날 저녁에도 모나크 프라자호텔 근처 단골 편의점에서 단합할 생각에 모두들 신이 나 있었지요. 서로서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하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만나자는 인사가 "짜이지엔"이라고 하더라구요.

서울사이버대 23기 역사문화탐방단원들에게 외쳐 봅니다. "짜이찌엔~~~~~~~!"

그리고, 대만문화탐방의 기회를 준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트바위